

# “중동 리스크 장기화, 광주·전남 중화학산업 직격탄”

## ‘홍해 사태’ 산업계 타격

장기화되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이 광주·전남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수출입 기업이 홍해-수에즈 항로를 이용해 유럽과 중동, 북미 등지로 수출 중인 중화학제품군은 항공운송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원유 수입 양의 70% 가까이가 중동산이라는 점에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홍해 사태’로 광주전남의 수출 비중의 33.1%를 차지하는 유럽과 북미 중동 등지로의 수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중동·북미 수출 홍해항로 이용...피해 증가 불 보듯

원유 수입 70% 중동산...석유·석유화학 등 타격 불가피

특히 유럽과 북미, 중동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이 대부분 중화학제품군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의 품목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철강판 20.5%, 합성수지 19.4%, 선박 17%, 석유제품 8.7%이고 북미는 자동차 49.3%, 석유제품 12.5%, 냉장고 9.1%, 중동은 자동차 20.4%, 합성수지 19.3%, 철강판 8.5% 등 무거운 제품들이다.

벉길이가 막히면서 항공운항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는 품목 대부분이 무게로 인해 항공운송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모든 수출기업이, 북미는 동안 중동 지역은 홍해 접경지역으로 향하는 물류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홍해-수에즈 항로의 대체항로인 희망봉 우회 항로의 경우 운항거리가 3800NM(해상마일)이 늘어 나게 된다. 육로로 따지면 대략 7030km가 증가해 운항일수는 약 10일이 증가한다.

운항일수와 운항거리 증가로 운항비와 보험료가 동반 상승해 운임상승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고조된 갈등 상황이 중동 전체를 뒤덮으면서 긴장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 국적 유조선이 나포된 데 이어 친이란 무장조직이 감행한 공격에 미군이 숨겨 미국의 보복공격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광주와 전남은 전체 수입 중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8.4%로 가장 크다. 특히 이로 인한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광주·전남 원유 수입의 69.8%가 중동산이기 때문이다. 북미지역도 지역 전체 수입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원유와 석탄, 철광 등이다.

홍해 사태가 장기화 되면 여수산단 입주기업 등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업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무역협회 광전본부가 지역 수출입 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홍해 사태로 전체의 74.6%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운임인상이 44.3%로 가장 많았고, 운송 지연 24.1%, 선박확보 어려움 20.2%, 컨테이너 확보 어려움 11.4% 순이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본부장은 “현재까지 중동 리스크로 인해 직접적인 수출입 피해는 제한적이다”면서도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역협회는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물류 운송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테마주 열기 또 한번” 개미들 AI·바이오 샀다

광주·전남 1월 거래대금 8조4092억...전월비 13.7% ↑

제주반도체·HLB 거래 많아...삼성전자 1330억원 매수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개미’들은 코스피 종목을 파는 것보다 사들이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자들은 이차전지 관련주 약세로 매도는 못한 반면 대기성자금을 활용해 또 다른 테마주를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1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은 8조4092억원으로 전월(7조3935억원)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역 개미들의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8906억원으로 전월(1조6889억원) 대비 2017억

원(11.94%) 증가한 반면, 매도거래대금은 1조8240억원으로 전월(1조8659억원)에 견줘 419억원(2.25%)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매수와 매도는 동반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달의 경우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폭락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관망하면서 매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저PBR종목 급등세로 일부 차익 실현에 성공해 대기성 자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매수금액이 13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급등한 기아는 350억(9위)원으로 오랜 만에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에서는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 대금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2조3558억원으로 전월(1조9344억원)보다 4214억원(21.78%) 늘었고, 매도거래대금은 1조9040억원에서 2조3386억원으로 4346억원(22.83%) 늘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은 월초와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AI관련주 제주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고팔았고, 바이오관련주인 HLB를 두번째로 많이 사고팔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지난달 증시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급등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다”며 “특히 월말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와, 기아의 경우 지역에 업장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 전남도, 태국-인도 시장 진출 참가 기업 모집

19일까지 소비재 수출 증기 대상...4월 시장개척단 파견

8곳 선정...바이어 매칭·통역·코트라 긴급지사화 등 지원

전남도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태국-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전남 방콕-뉴델리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4월 1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과 인도 뉴델리에서 아세안 및 인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충북 등 다른 지자체들과 통합 운영을 통해 풍부한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중심지로서 주변 국가로의 확장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꾸준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6~7%대 고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 중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타 시도 제품만 유통하는 기업이나 국제 또는 지방세를 제한한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19일 오후 5시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8개 기업을 선정하며,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매칭, 통역, 코트라 긴급 지사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신세계 “명절 선물로 접시 어때요”

‘닥터하우스·필리빗 등 생활·청소·잡화 선물세트 준비

광주신세계는 설 명절 선물로 차별화된 제품을 찾는 고객을 위해 생활·청소·잡화 등 다양한 상품군의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생활관에서는 그릴팬과 접시 등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사진> 생활용품 브랜드 ‘닥터하우스(Dr.

HOWS)’는 보스크 그릴팬(26cm)을 정사(16만원) 대비 60% 할인된 6만4000원에 판매한다.

‘필리빗’은 다파스타 접시 선물세트를 50% 할인된 7만3000원에 선보인다.

주얼리와 잡화 등 제품군도 ‘가성비’ 선물을 판매한다.

‘제이에스티나’는 페롤라나 팔찌를 62% 할인된 18만원, 미오엘로 목걸이와 귀걸이를 50% 이상 할인한 각각 7만7000원, 8만8000원에 판매한다. ‘스톤헨지’는 실버 목걸이를 절반가인 7만



8000원에 선보이며, ‘골든듀’와 ‘판도라’, ‘다이아미’ 등도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청소용품도 빠지지 않는다. ‘로보락’은 인기 제품인 s8프로 울트라를 정사보다 12만원 할인된 157만원에 판매하며, 7만원 상당의 소모품(물걸레 및 먼지필터 등)을 증정한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차별화된 선물을 찾는 고객에게 광주신세계 설 명절 선물세트를 추천한다”며 “나만의 선물을 찾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 광주공항서 전국 전통주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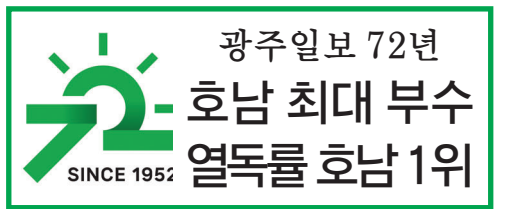
5월 5일까지 담양 대동대일술 등...쌀 오란다 등 특산품도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월 5일까지 ‘지역특산 전통주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매전은 광주공항이 지역 전통주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 대동대일술을 비롯해 전국 대표 특산주류들을 판매하며, 시음도 가능하다. 또 전남지역 유기농 쌀로 만든 오란다 선물세트 등 다양한 특산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이근수 광주공항장은 “이번 전통주 판매전을 통해 오가는 공항 이용객들이 즐겁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농협 직거래 장터”에서 설 준비하세요

농협 광주본부, 광주지검서 과일·한우 등 농축산물 선보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설 명절 농·축·특산물 직거래 큰 장터’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지검과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을 맺고 매년 지역 농축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개장식에는 박종근 광주지검장과 문현철 차장검사, 유종민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했다.

직거래장터는 광주지역 14개 지역농·축협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계수용품, 농협목우촌제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호 본부장은 “농협광주본부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함께 소비자에게 우수한 농·축산물이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설 명절 농·축·특산물 직거래 큰 장터’ 개장식에서 광주지검과 농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오늘까지 하나로마트 남악점서 할인 판매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7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설맞이 직거래 알뜰장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기간 전남 대표 농축특산물인 배와 사과, 딸기, 키위, 바나나, 레드향, 고구마, 육포 등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남농협은 개장일이었던 지난 5일 사과·배 세트 ‘1+1’ 증정행사, 쌀 무료 증정행사, 전통놀이(투호) 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많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이날 전남농협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올 설 명절에도 전남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달라”며 “올해에도 많은 국민들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알리고 많은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남농협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5일 농협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열린 설맞이 직거래 알뜰장터 개장식에 참여한 전남농협 관계자들이 농산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